

씨울과 평화사상

〈강연〉

안 병 무

막을 여는 역할

함선생에 대한 글은 제가 여기저기 썼어도 사실은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자세로 쓰지않다가 처음으로 고려대학 평화연구소에서 “함석헌의 평화사상”이라는 제목의 청탁을 받고 본격적으로 그때 함선생님의 전집을 전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책(현대 평화사상 이해, 한길사간)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기로 하고 내가 함선생님의 “씨울”에 관해서 별로 많이 얘기한 일이 없어서 주로 그의 생애에서 본 에피소드나 좀 얘기하자 그런정도 말했는데, 씨울얘기를 되도록 쉽게 늘 접하던 얘기였으나 이번에 그래도 정리해 본다고 중요한 말들을 전부 찾아보는 작업부터 시작했는데, 구성화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전제로 오늘은 문을 여는 책임을 제가 진 것으로 알고, 앞으로 계속하실 때 본격적인 연구하는 태세로 강연회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전집을 다 들춰 읽어보며 아주 놀란 것은 편집이 형편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 주최한 분들이 별로 이름을 내놓지 않고 지난번에 소식지에 보니까 “과거엔 기라성같은 함선생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어디가고”하는 자학적인 언어들을 썼던데, 실은 함선생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소리없이 그 뜻을 실천하려고 애쓴 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으면 그것이 씨울모임입니다. 또 하나의 모임있어요. 함선생

님 기념사업회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제 구실을 못하고 오래 끌고 오다가, 그것도 박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살려달라고, 나를 쫓아낼 수 없이 움직이는 정도의 성격이니까 그래 이제 다시 이번에 재구성 할 준비를 하고, 이 씨울모임은 또 그와 상관없이 정말 동지들끼리 모여서 소리없이 해나가는데, 저는 가능하면 마음으로라도 지원한다, 그런 생각을 했고, 뭐 힘쓰는 자가 주인이지요. 실지로 힘쓰는 사람들이니까.

이번에 함석헌 기념사업회가 형성이 되면 가능한 합해서 하나로 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좀더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 하나 있고, 이 전집도 한 번 재편집을 하고 교정을 하는 작업을 나눠 맡아서 하시면 좋겠다, 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함선생님의 에피소드 중 재미있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 분을 같이 모시고 지나는 동안에 직접 들은 얘기 또 간접으로 들은 얘기, 경험한 것들을 함선생님을 피부로 느끼며 생각하는 분들이 그분의 생애에서 단편적인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웅근 얘기들이니까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냈으면 참 좋겠다, 특수한 양반이니까 그것이 그 양반의 생각을 집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제목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씨울”이라는 말을 많이 반복해서 했고, 여기 몇 분들이 쓰시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논한 논문들도 있는 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목에서 씨울의 탐구, 서문격인 얘기를 오늘하고 마지막에 평화사상은 결론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이라는 집약적으로 한 두 마디로 하겠습니다.

씨울사상 형성의 배경

맨 처음에 함선생님의 씨울사상이 형성되기까지에 큰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평화사상을 쓸 때에도 함선생님이 선 역사 상황이 어땠나 하는 것으로 얘기를 출발했습니다. 그분은 평화사상을 이렇게 생각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되도록 밝

혀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못되더라도 왜 이런 씨울의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었나 하는 윤곽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씨울이 될 말하자는건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씨울과 예수와의 관계를 말씀드리어서 씨울의, 어떻게 보면은 정태적인 모습과 같은 표현이 많은데, 거기에 반해서 실제적인 역사상에서 움직이는 씨울의 모습은 어떤건가 하는 것을 측면적으로나 밝혀보는 것으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함선생님을 “씨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바보새” 그건 좀 어울리지 않고, 우리는 차라리 “씨울”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씨울 함석현”이라고 그런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말 꼭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함선생님 묘비하나 없습니다. 빈들에 무덤만 덩그렇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안됐지요. 그런데 함선생님이 글을 쓴 데에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비석을 세우면 벼락이 와서 떨어질거다” 그랬다 했어요. 사람들이 벼락 떨어질까 봐 제 머리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랬는지 누구도 염을 안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안하는 건 말이 안되니까 함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래도 비석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빨리 세워야 되겠다, 그걸 제의합니다. 모임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되든 말든 함선생님 생각하는 분들이 꽤 숨어 있으니까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게 씨울 함선생님의 비석을 세우는 일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영모와 우찌무라

씨울 함석현은 근세사와 현대사 사이에 틈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씨울이라는 말을 창안해 냈다는 유영모 선생님과 다른 점입니다. 유영모선생은 근대사에 끝을 맺은 분입니다. 현대로 들어오진 않았습다. 사고 하는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생깁니다.

함선생님은 근대사와 현대사의 틈바구니에서 나왔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의 사상을 생각하는 것이 유영모 선생과 비교하기에 편리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한문권 시대라고 성격화 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경직화된 기독교와의 사이에서 ‘대학’을 읽다가 민(民)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씨울이라는 말로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씨울이라는 말 자체의 창시자는 유영모 선생이라고 일단 말을 합니다만은, 씨울이라는 말로 바꾸었으나 사상적으로 전개한 것을 나는 전혀 모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받아왔어도 이 내용을 전개한 것은 함선생님이지 유영모 선생님과 상관 없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제가 유영모 선생님 모임에도 줄곧 참여했었습니다마는 그의 사고 전반에는 민(民)을 씨울로 바꾼 의도가 뭐 새것 있나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역시 경직화 돼있던 기독교를 알고 그 다음 한문권에서 기본 사고가 굳어 있고 그 틈에서 민(民)이라는 말을 씨울로 바꿔봤는데, 그의 기본적 사고의 틀은 특별히 윤리적인 시각에서 볼 때, 유교와 그렇게 틀리지 않는, 비록 노장(老莊)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한국기독교의 지도층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씨울 함석헌은 신학문, 소위 서구식 학교로 전전하면서 유교적인 보수주의에 대한 회의를 점점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도 유영모 선생하고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요인의 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씨울 함석헌은 교권주의에 극도로 싫증을 느꼈고 회의를 가졌고, 그러고 있을 때에, 성서해석권에서 자유를 얻으려는, 해석권에서 주체성을 주장하는 무교회주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기독교 밖에 있게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점은 유영모 선생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영모 선생하고 다른 점은 유영모 선생은 그렇게 우찌무라에게 깊이 빠진 분은 전혀 아닌데, 함선생님은 상당히 거기에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찌무라는 무교회주의라는걸 내세워서 성서의 해석권의 주체성을 주장했다는데서 획기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가 비록 정치적 얘기,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였던 걸 언급한 작은 글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주변적인 얘기이고 그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성서연구에 두고 있습니다. 전집을 보시면 아시는대로 성서연구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우찌무라의 성서해석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보수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의 보수계가 좋아합니다. 무교회라는 것만 빼고는 우찌무라의 성서 해석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찌무라는 적어도 성서 자체를, “내 눈으로 보겠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 “신학은 필요없다” 신학을 거부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신학의 틀을 가지고 성서를 읽었는데 대해서 신학을 거부하고 보니까 남는건 성서인데, 그러나 그는 절대로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슨 신학인가 하면 역시 종교개혁, 특히 루터의 신학, 일러 사도적복음주의라는 그 신학영역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틀에서 성서를 언제나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필요없다고 하면서도 거기서 해방이 못된 분입니다. 하나 더 지적하고 넘어 갈 것은 우찌무라는 동양의 사상은 아주 경시했습니다. 동양사상은 없다고 봤습니다. 역시 사상은 서양사상이 옳은 거라고 보고 있고 동양사상에 대해서는 별 기대를 안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영모 선생은 동양사상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던 분인데, 함선생님은 결코 우찌무라를 따라가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그가 이점에서 유영모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그의 독자성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씨울 함석헌과 조선역사

주의하면서 우찌무라의 책을 읽으면 그가 얼마나 성서해석을 하면서 루터의 사도적 복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는

곧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향받은 씨올 함석헌에게는 사도적 복음이라든지 복음주의적이라는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만 머물기에는 함선생님은 사상적 입장이나 성격적으로 너무나 자유분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전까지는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우찌무라의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거의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제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때 동경고사 나오면 어디가서 선생 못될 데가 없는 터에 학교갈 지도 않은, 초라한 학교로 왔습니다. 민족의 학교이고 모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그의 일생의 공적인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준 영향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그의 자세가 얼마나 진지했던 가는 지금 몇 남지 않은 그의 증인들, 그의 제자들 말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산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가 장사꾼으로 출발한 남강 이승훈, 무식한 사람이죠. 그러나 의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은 기인이라 할 수 있는 유영모입니다. 함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남강은 불학 무식한 상인으로써 돈만 벌려고 하다가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듣고 삶의 180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유영모는 무엇보다도 잊혀지지 않는 게, 다른 것은 기억이 하나도 안나고 학(學), 학(學), 학(學)이라는 소리 밤낮 반복하던 것이 제일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별로 영향을 받을 새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불과 10여년 차이 밖에 없었으나 일생동안 “선생님”하면 유영모 선생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씨올 함석헌은 모교인 오산에 와서 한국사를 일단 맡았는데,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소위 교과서라는 것은 있지만 이것도 거짓말이고 저것도 거짓말, “오천년 찬란한 역사라고”하나 “찬란하긴 뭐가 찬란해. 밤낮 종노릇만한 역사, 뭐이 찬란해” 그런 거짓말을 차마 학생들에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한국사를 말하나?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거꾸로 참 실패의 역사만 계속

해서 내리 옆으면 학생들을 너무 좌절 밖에 시킬게 없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이 분은 어느 책도 교본으로 삼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교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손에 들어온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뜻으로 본 한국역사”가 되고 또 가필이 되었습니다.

만년에 부산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이 분에게는 길게 두 시간을 잡았는데 3시간이 넘도록 그냥 계속해서 “선생님 이제는 그만 하십시오”하고 전했더니 보시고 “사람이 말을 다 할 수 있나, 그만 뒤야지”라고 중얼거리다가 도 말문이 열려서인지 “할 말은 다 해야지”하더니 또 한 시간 계속했습니다. 그래 씨을 함석헌은 할 말 다 못했지. 그런데 그가 한 말들을 우리가 십분의 일인들 전수합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씨을의 소리에 낸 글도 처음부터 제약받고 들어가니까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지금 읽어보면 이미 자기가 검열을 하면서 쓰니까 할 말을 못했어요. 글을 쓰면서 이거 날 수 있나 없나 생각 하면서 썼으니까, 할 말 참 많았는데 할 말 못했지. 그 못다한 말 누군가가 채워야지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런 모임을 가지는 거지요. 그가 다 못다한 말을 하자. 그래서 자료도 필요하고 아직도 여러분의 머리에 기억되는 것들, 또는 어디에 숨어있는 글들을 모으는 일이 중요할 겁니다. 그의 글 사이의 뜻을 읽어내며 그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것이 후진들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씨을

그의 한국 역사에 꽃힌 화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우리 민족사는 철저히 고난으로 점철됐습니다. 이것은 씨을하고 분리시킬 수가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제가 함석헌과 만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6·25때 그 책을 얻어읽고 “우리는 세계사의 변소간 노릇이나 한다” 뭐 “하수도

역할이나 한다” 이런 정도의 말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가느냐고 불평을 했는데, 함선생님이 어떻게 그걸 읽으시고 부산 모임에서 “안병무는 아마 내책의 마지막을 안 읽었나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얻어본 책이 끝부분이 없는 것이었어요. 잘려나간 책이었습니다. (웃음) 후에 그말하고 서로 웃은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고난!”이 엄청난,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풀자는 것과 씨울이라는 결론, 이걸 정말 원인이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를 빼고 씨울얘기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씨울은 가만히 읽어보면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표현같은 것이 많지만은 어디까지나 한국역사라는 현장에서 터득한 큰 과제, 대답해야 될 숙제를 안고 찾은 대답이 “씨울”입니다. 그점에서 비역사적이니 뭐니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또 그 현장을 조금도 잊어버려서는 씨울의 본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관념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든지 잊지 말고, 왜? 어째 생겼나? 한국 역사를 꼭 얘기해 줘야 하겠는데 완전히 좌절에 빠진 젊은 층에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말할까 그래 회고해 보니까 정말 고난에 가득차 있었는데, 왜 이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야만 했나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항의문을 내고 대답을 강요한, 그 결과가 오랜 끝에 씨울이라는 말로 집약되었다, 이 점은 잊지를 말아야지. 그걸 빼면 어떤 눈으로 보면, 형이상학적인, 막연한, 플라톤의 이데아 비슷한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폭도들 군중선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잘못 빠질수가 있습니다.

고난! 이것이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앞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잊지를 말았으면 합니다.

고난! 죄없는 이 민족이 당하는 고난! 그의 계산대로 하면 평균 30년에 한번씩 외세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본 사람이 “한국은 꼭 출입구 걸, 변소에 맞닿은 자리같다”고, 조금 눈감고 자려면 변소간 문을 들락거리 깨고 또 깨야하는 이런 식으로 30년에 한번씩 또 깨고 또 깨고, 또 얻어맞고 또 얻어 맞고 도무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일을 계속했는데, 왜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가? 그게 그의 질문이고 신에 대한 항의이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역사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길거리의 옷 다벗고 앉은 창기처럼, 이놈저놈이 맘대로 짓밟고 유린 강간당한 그런 창기로 보였을까! 그만큼 비통한 민족, 자기 민족사를 온갖 잡놈들이 계속 강간한 노처녀에 비교해야만 하는 그 심정을 죽어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씨올은 이런 맥락과 유리시켜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고난! 이 책이 30-33세에 쓰인데, 그때 그의 머리에 점령하고 있던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제 수난당하는 피해자의 단순한 원망의 눈물만이어서는 안된다, 계속 윤희당한 처녀의 닢두리 만으로는 안된다, 그렇다고 분장을 하고 “나는 깨끗한 여자”라고 화장을 하고 거리에 나선 창기같은 모습을 해서도 안된다, 그렇다고 지금도 강간상태에 있는 강대세력에 총을 가지고 맞설 수도 없는 상황에 있다.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금 당하고 있다, 왜?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고난의 짐이 왜 한꺼번에 뒤집어 씌워졌나? 일생 두고두고 하나님께 대드는 질문이었고 거기 대한 대답이 씨올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물음에만 주저 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불교의 소위 업보사상에 매여서 자신의 죄과만을 한탄하고 그 인연의 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그런 소극적 태도만을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잘못이지, 우리 죄지, 아니 우리에게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찾아야지 뭣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만 주어졌나,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평생 세계역사에서 세계를 위해 공헌한 일이 없는 민족이, 그래도 이 유가 있어서 세상에 남아 있을 텐데 그것이 뭔가? 대드는 거지요. 하나님께 대답니다.

결국 테마를 종합해 집약된 바가 “역사란 도대체 뭔가” “역사는 어떻게 형성되고 누가 이끌어 가는 건가? 어떻게 이끌어 가자는 건가?” 그런 질문이 집약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것과 관계

도 있습니다. 성서는 그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역사는 결코 윤회적인 것이 아니고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는 그런 신념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유명한 “대선언”, “나는 즐겨 이단자가 되련다”에서 “역사는 또 한걸음 나갔더라” 그 말이 중심입니다. 절대로 역사는 정지하지 않는다, 아니 전진한다, 앞으로 나간다, 철저한 목적론적인 역사관에 섰었습니다.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란 결국 인간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의 고난이란 것도 이 틀 안에서 이해를 해야지. 여기서 그는 우리 민족은 고립되어 떨어져나간,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발꿈치에 덧붙은 굴은 살처럼 뜯어내도 좋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고 세계역사와 무슨 맥이 통하는 것이 있을거다, 거기서 우리도 전체 속의 하나이지 개체가 아니다, 씨을 함석헌에게는 전체라는 의미가 씨을만큼 큼니다. 전체! 전체라는 것을 의식 못하면 우리 역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전체가 가는데 무슨 역할이 있다, 전체가 살아야 부분이 살고 부분이 살아야 전체가 산다, 전체! 씨을! 이들은 또 갈라놓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씨올과 전체

씨올은 개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단이라는 말은 꼭 맞지 않습니다. 집단개념이라 부득히 쓰긴 합니다마는 전체 안에 있는 것이 하나 하나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미 먼저 있고 거기에 씨올이 속해 있습니다.

씨올은 언뜻보면은 개체같이 보이지만 그 씨올은 전체를 이루는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뭇인가 묻다가, 역사를 이끌어 가는게 누구나라는 질문으로 옮겨가서 얻은 대답이 씨올이다, 누가 어떻게 평하든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뭐 미워한다거나, 역사가 잘못되거나 잘됐거나 간에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를 일러서 그는 씨올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와의 운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씨올이 잘못

되면 전체가 망하는 거고 씨율이 잘되면 전체가 사는거고,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또 한걸음 나아간다는데 그는 문제에 부딪친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반 역사에는 역사자체가 주격이 없이 스스로 전진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씨율 함석헌은 어느 주장에도 가담 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 그의 말에 열린 동의가 :이지 않았습니다. 또 역사는 주체가 없이 스스로 굴러간다, 그 말에도 절대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땅 위에 역사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데, 신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가.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가 걸렸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한대로 한국의 역사를, 고난이라는 것을 숙명처럼 짊어진 시지프스가 큰 돌을 그냥 굴리면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처럼 그냥 진통을 계속하고 잠깐도 정지하면 그 돌에 깔려죽을 것 같은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한, 누가 이 일을 담당하나?

설령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해도 누구를 통해서. 그것은 세계제도 속에서 말하는 구속된 인간, 어떤 의미로나 구속된 인간들, 임금, 대통령, 목사, 신부, 군인, 그의 말입니다. 관리, 의사, 장군, 죄수, 그런 것 등등 빠짱코 주인, 요새 뭐이 또 있던가. 국회의원, 그런 것들, 이름 있고 권력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역사를 이끌어어나가는 것은 아니다, 아니,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인위적인 사회적인 제도에 물들지 않은 존재, 쉬운 말이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때문지 않은 존재, 인간 생명의 본성이라는 말 같은 것. 절대로 무사(無私)한 자,공(公)만 있고 사(私)는 없는, 소유도 없고 지위도 없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그들의 소유요 그래서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되는 자들.

이런 의미에서 씨율이라는 것은 “인(仁)”, 이것은 그렇게 제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대로 하면 인(仁)하고 순(純)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자, 이들이 역사의 주체다, 하느님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간다, 한 말로 그 분의 독특한 말로 하면 “맨

사람”, 뭘로 무장하지 않은 맨 사람!

씨을 함석헌은 감옥에 한번 가서 설교하고는 그 다음 다시는 못갔습니다. 감옥에 가면 기결수 대상으로 주일날 오후되면 불교도 오고 기독교도 오고 하는데 ‘씨을’이 한 번 초청을 받았는데 원래 말버릇이 사나운 양반이, 한참 돌아보고 뒤에는 간수들 별달린 것들이 둘러앉았는데 둘러보다가 “뭇땅 다 벌거벗어봐! 불알달린 놈 뭐 어느 놈 크고 작고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교도관과 죄수가 뭐 다르게 있어!” 그 소리 때문에 다시는 부르지 않았어요(웃음) 뭐이 차이가 있어? 유니폼만 차이가 있지 속은 꼭 같은 거. 외적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별하는데, 이걸로 사람을 구별해 놓고 그것이 주체라고 주장하는 이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훌쩍 벗겨보자!

한신대에서 유신 때 하두하두 학생들을 괴롭히니까 무능한 교수들이 “에이 머리카락 자”고 하루저녁 머리를 박박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풀들이 그대로 드러나. 대갈통도 묘하게 생겼고(웃음) 하잘 것 없고, 문동환 박사가 거울을 들여다 보았더니 갑자기 중학교때 머리 깎던 모습이 생각났던지 “동환아!” 소리쳐 불렀어요. 그게 반가운가 봐.

안경, 머리모양, 의복, 목소리를 갖춰가지고, 그럴사하게 자기를 위장하는, 그런 것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순수한 것, 그런 존재를 그리고 있었어요. 하느님은 그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맨 사람”, 지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무장하지 않은, 그리고 자기를 그거로서 위장하지 않은, 그런 것이 씨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른보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다 뭐 인가 가지고 있지 “올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역사적이지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없는데, 뭇으로나 다 위치를 가지고 있는전데, 가장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어떤 형태로나 존재의 유지가 되는 거지 뭐. 그걸 필요로 해서 돈을 쓰면서도 심지어 교회서까지도 그런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총회장 하려면 몇억씩 쓴다던데, 빌어먹을 놈의 세상, 그런 거 쓰면 달라 보이거든, 그런 판인데, 어쨌든 무슨 존재가 인정되려면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가 형성되는데, 그런 걸 다 뺀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안될 얘기를 자꾸하고 이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하면 사실상 생판무능한 사람들이지요. 세상에 하잘 것 없는 자들. 궁감투도 하나못써 보는 것들.

“씨올은 어리석은 겁니다.”

“씨올은 더 나갈 데가 없는 바닥입니다.” 무능하지요. 갈 데가 없는, 맨 밑 바닥이지. 씨올은 어리석은 겁니다.

씨올 함석헌은 이상과 같은 소극적인 표현을 계속합니다. 그런 표현은 군국주의가 판치는 현장에도, 그리고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전략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제 본성, 본래 인간성, 참 민족의 전형이란 뜻입니다. 한국사람이란 본 모습을 씨올이라 할 때, 때문지 않은, 이질적인 것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육을 받으면 받은 것만큼 때문고 이질화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식인들의 한계를 안 것은 타견입니다. 소위 먹물들, 영리한 자란 대 가리만 돌지. 우둔한 데가 있어야 하는데!

순수한 사람이 역사적인 존재일 수 있을까. 씨올됨이 위에서 말한 것 뿐이라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내가 그때 얘기한 것, 이 역사책을 쓰면서 이미 씨올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어를 그때 쓰지는 않았습다. 학생들을 마주 놓고 지금 참 양심적인 젊은이로서 학생들을 마주보고 말하던 그 현장을 다시 회상해 봅시다.

그들 앞에서 씨올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시다. 그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그에게 일차적으로 그때 우리 한국 민족 전체를 억누르고 있는 일본놈들의 총칼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찢리고 저렇게 찢려죽는 수많은 고통의 비명소리가 지금 들리는 상황입니다. 토지조사라는 명분으로 하루아침에 수십만, 통계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수백만인지 모르겠어요. 하루새 땅을 뺏기고 남부여대하고

만주나 시베리아 등으로 아무 저항도 못하고, 아무 대책없이 나간, 저
도 그렇게 등에 업혀간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두 살 때 부모의 등에
그렇게 업혀간 사람입니다. 만주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끌려갔습
니다. 그런 현장에서 지금 이말을 합니다. 이 고난의 현장! 그런데 그
런 현장에서 얘기하는 그가 씨올을 이렇게만 규정했다면은 결국 모든
현실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는 말밖에 안되게 됐다, 그리고 실지로 이
런 얘기는 나는 이제 모든 걸 포기했노라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장송곡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교묘하게 설명해도.

그런데 씨올 함석헌은 너무도 비약적인 선언을 병행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씨올입니다.”

전집에는 제8집에 씨올의 말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더군요. 주로 8
집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씨올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씨올입니다. 씨올은
연륜을 짓고 역사의 주인입니다.”

씨올과 예수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럴 의도는 없고, “연륜을 짓는다” 바
로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이 씨올이라는 겁니
다. 그것만 가지고 역사를 만들 수 있겠나? 아니, 그의 할 말은 더 많
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 할 말도 많지요. 마침내 그의 이러한
신념은 구체적으로 사상화합니다. 그것이 씨올과 예수를 일치시키는
데서 드러납니다. 씨올은 예수를 일치시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씨올 중의 씨올은 예수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
라고 부른 말이 이것을 입증합니다.”

여기 설명이 필요하다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으니까 설명을
요약하겠습니다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가장 겸손한 말로
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는 스스로 씨올로 인정했다, “예수가 어디 있습
니까?” 그는 질문합니다. “씨올이 바로 그이입니다.” 판데 없습니다.

씨올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 씨올이란 말은 곧 예수란 말이고 예수란 말은 곧 씨올이란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예수만 부르고 거기 덧붙인게 하도 구질구질한게 많으니까 씨올이란 말로 바꿔볼러보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깨어있는 눈올이었습니다. 씨올 중의 씨올이었습니다.” 예수를 예배의 대상으로 해버리고 신으로 승격해버리면, 그가 갈릴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민중과 어떻게 더불어 살았는지? 또 십자가에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달렸는지 그런 의미도 아리송해집니다. 그가 세상에 온 의미도 다 흐지부지해집니다. 왜 오늘 교회가 세계가 예수를 역사밖으로 내쫓고 있나? 교회는 물론이고, 그것은 그의 존재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가 정말 엄존하게 교회 없으면 교회서 제멋대로 해먹을 수 없으니까 예수를 배제하는 겁니다. 씨올 함석헌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게 민중입니다.” 바로 예수를 좀 더 심도있게 “하늘에서 온 이” 그가 바로 민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대로 전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말하면 문제를 일으켜요. 사람들이.

그러나 “씨올”하면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예수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괜찮아요. 여기저기 씨올농장 등 별별게 다 있습니다. 특별하니까. 보수계 교회라도 그거 붙이는 것을 많이 봤어요. “씨올은 예수다.” 그말하면 아마 담박 야단 날꺼예요.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씨올이라는 말로서 역사에서 교리에 갇혀있는 예수를 해방시키려는 데도 큰 역할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이 현상계에 내려오는 자리가 결국 씨올이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올 수 있는 자리는 교회도 아니고 씨올, 씨올의 현장이다, 참 이 말은 새기고 세계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자리가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열심히 통성 기도하는 교회도 아니고, 어떤 색칠도 하지 않은 씨올이라는 이 말, 여기에 씨올 함석헌의 저항의식이 굉장이 팽배해 있습니다. 기존 어떤

조직에도 아무런 기대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비조직적이라는 비판받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다, 사실은 사실이다, 마침내 그는 이런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나도 이말을 했는데 함선생님이 이걸 쓴걸 모르고 했는데 꼭 같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나는 성서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 말을 듣고서 벌써 함석헌 선생님이 다하신 애기구나.

“씨울은 세상죄를 지고가는 어린 양입니다.”

나는 세례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민중이라는 말로 바꾸면 왜 나쁘냐? 그 말을 했습니다. 민중이라는게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아니예요? 그 말을 했는데, 함선생님 벌써 이미 해놓고 있어요. 세상죄를 지고가고 있는 거죠. 남이야 인정하든 말든 스스로조차도 인정안하고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거죠.

“예수는 곧 씨울입니다.”

조금 뽀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수가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에서, 민중이라고 한다면 부정도 긍정도 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곧 민중이다.” 그러면 펄쩍 뛰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왜? 세상죄를 지고가는 것이 바로 씨울입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예수하고 일치시키면은 교리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씨울, 그 근원은 땅에 두었지만 하늘에 있다는 기본적인 틀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지요. 오세 청중들입니다.

함선생님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한 끝은 하느님이고 딱 한 끝을 잡으면 민중이다, 이런 표현도 하지요. 분리시키지 말자, 이원론에서 해방되자, 씨울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이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연과 역사, 뭐, 영과육, 자꾸 나누어 사고

하는데서 씨올이라는 걸 가운데 딱 놓고 이원론적인 사고를 극복해보자, 어떻게 보면은 함선생님의 씨올이라는 생각이 정태적인 존재론이다하는 인상을 주는 그런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선지자요 바로 예수가 내려온 씨올이라 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속에서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합니다. 이런 질문에 언제든지 반복을 해야 할 위치에 자꾸 놓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함선생님은 더 나아가서 예수를 참 의미의 씨올이라고 할 뿐아니라 이제 현실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씨올뿐입니다, 하는 선언까지 합니다.

나는 여기서 조금 뛰어서 이제 정태적인 씨올이 아니고 역사에서 움직이는 씨올을 설명할 단계에 왔는데, 여기까지 하고는 논증하는 것을 사실 게을러서 못했는데, 여기서 간단히 추린 것은 제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쉽게 몇가지 분류하겠습니다.

“씨올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는 곧 씨올입니다.”

이거는 부정없이 반복되는 씨올 함석헌의 주장인데, 무슨 의미인가? 몇가지로 저는 얼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그는 “웅근 올”이라고 봅니다. 웅근 이, 웅글다, 완전하다는 의미, 근경에 저는 심각하게 그런 생각을 해야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왜 온전한가? 하느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는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항의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렇지 온전할 수 없지. 차라리 공자나 석가는 오래 살면서 이모저모 다 그래도 사람할 일 다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예수는 한 1년 쯤 살면서 온전은 고사하고 요만한 한쪽 구석밖에 못하지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문선명이는 장가도 못간 주제에 뭐하느냐, 그러고 있는데, 맞지. 장가도 못간게 뭘 인생을 왈가왈부해요? 그건 사실이야. 나는 이제 장가갔으니까 이제는 할 말이 있고(웃음).

그런데 함선생님은 예수야말로 “웅근 올”이다, 완전하게 살았다, 나는 그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결국 짧은 생을 살면서 십자가에서 마지

막 피한방울까지 다 흘리고 죽은거, 자기가 당한 일에 끝까지를 철저히 완수하는, 그게 완전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완전은 그거지.

“테레이오스”(τελειος)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돼서 “완전무결”이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니까, 누가복음은 바뀌서 “하나님이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로 바꿨습니다. 오해를 할까봐.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이란 것은. 네가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예수와 같이 그런 일에 철저히 갔지. 가도 철저히 갔지. 농락당해도 철저히 당했지. 무신적인 경험을 해도 철저히 했지. 배신당해도 철저히 당했지. 겨우 12제자밖에 못거느리는데 그것도 다 못거느리고 한 놈한테 배신을 당해? 못났지. 철저히 못났지. 어느 면으로나 하여간 철저한 건 철저하지.

비명이라도 질러라

함선생님이 마산요양원 폐병쟁이들 누워있는데 가서 그런 소리 했지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도 그런데 여러번 가봤지만 가면 눈깔이 말뚱말뚱한 환자들이 누워서 위로의 말이나 기대하고 말잘하나 못하나 이러고, 지나가는 간호원들 보고 엉덩이 크다작다 요런거나 하고, 뱅둥뱅둥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래 있으며, 그런데 거기 척 가자마자 위로의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에이 폐병쟁이들아, 걸릴게 없어 폐병 걸렸어? 이새끼들아.” 이새끼란 말은 내 말이고(웃음) 하여간 소리를 쳤어요. 눈이 뚱그래졌어요. 이유는 간단해. 비명이라도 질러라. 아프면 비명을 질러! 눈깔이나 쳐다보면서 누가 도와줄까 생각지 말고 네 아픔을 비명을 질러서 그 비명이 짊마른 사람들의 마음을 뚫게 해서 사랑의 샘물이 나오게 해라, 그게 철저히 사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사는 겁니다. 폐병든 상태에서 네 할 일이 있다, 비명질러도 철저히 질러라! 그게 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누가 따르겠나?

좀 뽀시다.

예수는 완전 수식이 없는 이, 그래 예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대학도

못가본 함선생이니가 그랬나봐. 나보다는 좀 아래라 그 생각했나봐. 자기는 그래도 고등사범이라도 나왔는데 예수는 불학무식 하잖아요. 불학무식한데다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 자리가 있나? 함선생님은 그래도 중학교 선생이라도 한 10년 했지만, 뭐 계획성이 있나? 예수 계획성이 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걸 보면 꼭 죽기 알맞게 굴어(웃음) 스케줄이 있어요? 없어요. 프로그램 없어요. 그래 1년도 못살아 잡혀 죽었지. 얼마나 못났어요. 그게 좋아. 예수가 그게 좋아. 뭐 틀잡아놓고 그거보담도 좋아. 무명성, 아무 존재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유명했던 것 같지요? 마치 성서를 읽으면 세상이 왁자지껄 했던 것 같지요. 로마가 세계 역사를 소개하는데 단연 고대국가에서는 제일이었습니다. 세밀한 식민지사도 다 기록해 뒀습니다. 예수 애기 만든 한마디도 기록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미없는 모험이었습니다. 예수 따위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무 것도 아닌 건데, 무명한 존재,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연하게도 너무 무명하지. 함선생님 자신이, 아마 이때 그렇게 생각했을거야. 씨율은 소리도 없고 지위도 없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그들의 소유요, 역사의 주인인, 그 주인의 자리가 바로 그들의 지위입니다.

그래 예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바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었어. 예수를 고백하는 그게 좋아.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수식이 없는, 랍비이길 합니까, 학교를 갔습니까, 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글은 아마 읽는 것 같애. 그 외에는 아마 매력도 없었나보지. 장가도 못가고 애비도 없고 그 순수한 거, 수식없는 그거, 그게 좋았던거죠.

세번째 무엇보다 참 복종, 별로 긴애기 할 맘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철저한 복종과 무위(無爲)라는 것을 함선생님이 연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무위와 철저한 복종, 그 둘을 한 맥에서 보았습니다. 씨율을 우리는 무위, 가장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세번째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설명은 전개를 못합니다만, 그가 원했

던거는 참 씨올은 “나는 나다”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나다” 요한복음에 “에고에이미”(εγωεγω) “나는 길이다”하는 그 에고가 바로 씨올이 부른 낱사람, 나다, 유영모선생도 그 얘기 하지만 나라라는 것이 판게 아니고 “나”라 하고 내세울만한게 나라인데, 요새 무슨 나란가. 그런 말 썼습시다마는 “나다!” 그렇게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 놓습니다.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나다!” 확실히 “나다”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 존재하는 나, 내가 가진 것 있다, 내 할 일이 있다, 확실하게. 씨올이 가야할 모습, 씨올의 본 모습을 예수는 가장 잘 드러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올의 본체를 가장 계시하고, 깨어야 할 씨올의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씨올은 더불어의 존재

그리고 하나 덧붙일 것은 씨올은 결국, 예수는 더불어의 존재, 홀로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더불어의 존재입니다. 나내가 아니고 우리로서 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같이살기운동”이란 말로 전개하면서

“예수처럼 같이살기운동을 철저히 한 이는 없었다. 씨올은 참의 씨요, 사랑의 올이다.” 그것으로만 살자는 것이 같이살기 운동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같이사는 자, 이것도 시간상 약하겠습니다마는, 예수의 공동체, 혼자사는 것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씨올은 홀로 있는 듯 하나 아니, 전체란 속에 있죠. 유리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신념을 갖고 말을 합니다.

“씨올은 씨올을 낳아” 씨올을 낳아야 돼요. 그리고 낳아. “민중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를 품었기 때문에 마침내는 그 아픔을 다시 낳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자주 씨올을 낳읍시다. 내가 평생에 불행

하다고 한 것은 애를 한번 배웠더라면 그게 내 소원인데, 그게 하나 유감이예요. 얼마나 애를 한번 배면 좋을까, 생명이 여기서 한 십개월 자라는 것, 그 경험 못한건 나 유감이야(웃음).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으면 그것때문에 바꾸고 싶은데, 씨울은 올을 낳아야지. 새끼를 낳아야지. 이게 새끼 낳자는 운동 아니요?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꿀벌은 그 본이 여성입니다. 씨울도 여성입니다. 평상시에는 일만하지만 비상시에는 나라를 위해서 대를 끊기지 않도록 올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조금 현대 여성학 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세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알고 들어야지. 중요한 건 우리가 받아야 될것은 씨울은 새끼를 자꾸 낳아야지. 또 낳습니다. 씨울 낳는 운동으로, 새끼낳는 운동을 벌여야지. 자꾸 낳아야지.

결론은 없고 평화얘기, 이거 읽어주시면 좋지만 한마디만 합니다. 제가 평화연구를 내 나름대로 해보고 놀란게 있습니다. 함선생님은 아나키스트이구나! 무정부주의자구나. 그거 발견했습니다. 정부를 싫어했어요. 국가권력이라고는 애당초 머리를 흔들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일생을 보냈습니다.

자, 세상에 나자마자 썩어빠진 정부, 개고기 뜯어먹듯이 다 뜯어먹어도 꿈쩍못한 정부, 일본놈들이와서 강점을 해서 거기서 죽게 당했지. 해방이 되니까 이북에서 또 끌려가서 죽을 뿐 했지, 남쪽에 내려오니깐 글 몇줄 썼다고 또 데려다 거꾸로 매달아놓고서 그냥 죽도록 일생동안, 평생 권력이라는 걸 경험한 것은 몽땅 개같은, 돼지같은, 도둑놈같은 것 밖에 없었어요. 경험못했어요. 보호를 해?

그는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얘기해도 정부가 한다, 난 그건 함선생님 고대로 따라잡니다. 아니요. 나는 반대입니다. 통일! 아니요. 정부가 하면 안됩니다. 그건 반통일 세력이요 언제나. 아무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해도 나는 그거 곧이 안들어. 세력의 자리에만 앉으면 썩으니까. 피테의 말대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썩지 않는 것이

없다고, 특별히 권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권력 절대 안민은 함선생

함선생님은 국가권력 절대로 안민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안민합니다. 청년들이 운동을 할 때 조직을 만들고 야단 할 때도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그런 의미의 정치 싫다고 그랬어요. 청년들이 그걸 못 이해하고 막 분개하고 그랬어요. “아니야 안민어. 일생을 두고봤어.” 거기 말길 수 없어. 그러니까 누가 실제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갈 건가?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국민?” 이거 벌써 돼먹지 않았어. 나라 국(國)자를 그 분이 쓰면서 도둑놈이라는 내용이예요. 무기 가지고 해먹는 도둑놈이라고 설명해서 이걸 안되는 거고 “대중” 대중식당, 그것도 안되는 얘기지. “인민”이란 말 괜찮은 말인데 그것도 제한받고 되지 않지. “피플(People)” 여기 피플이라 했지만 맞지도 않는 번역이고 피플은 무슨 피플이요. 뭐이라고 부르나? 비록 존재가 없어도 이 권력이 못누르는 것들, 아니 권력에 외향적으로 하는 척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 힘을 못쓰는, 그게 뭐냐? 일러 써올이라 했습니다.

씨올! 지금까지 어떤 말이든지 거기 때가 물어버려서 곧 이용을 해먹는데 씨올이란 말은 아직 누구도 써먹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이 정부도 문민정부? 그들도 이거 써먹으면 이거 썩어버려. 제발 못쓰도록 막아야 되겠는데. 어쨌든 권력이, 이런 가진 것들, 자리를 가지고 뭐이든지 위치를 가지면 그 반대를 누를 수 있습니다. 다 누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멍가게 하나 내도 누를 수 있습니다. 교수, 목사 다 누를 수 있습니다. 다 누를 길이 있습니다.

무명! 아무것도 안가진 것들은 누를 길이 없어요.

제가 언제 한 번은 정보부에 무슨 관계를 어쨌다가 “아,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찌지 못합니다.” 무명인들에게는 못건던데. 그러나 이름이 좀 있는 놈은 누르기 쉬워. 이쪽만 꼭 누르면 무슨 말이 나올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당신 어디 누르면 다 아오. 이런 태도요.

아무 태도 안눌릴진 아무 것도 안가진 것처럼 무서운 것 없어요. 자리를 무서워 안하는데, 뺏길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의 씨올이란 머리 속에는 이 포악한 권력에 계속 일생을 기다려 왔던 그 생각과 씨올이란 생각은 아주 맞먹어 돌아잡니다. 그놈들을 이겨야 되는데, 그놈들에게 오염이 안 돼야 되는데, 그 놈들이 손을 못대. 귀신작전같이 하자는 거지. 게릴라 주장도 한 번 해보고 그랬지. 이름만나면 안돼. 이름없는 사람들이 게릴라작전 하자고.

할 수 없지 뭐. 운동이 안되면 집에서 이불 밑에서 새끼를 자꾸 낳아. 그러면서라도 이게 불어나서 이게 중심이 돼야 나라가 되지 그렇게 되지 않고는 멀었다, 그게 함선생 생각이다, 준비없이 이렇게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박수)